

광주FC, 김포 잡고 리그선두 이어간다

내일 솔터축구장 원정 맞대결
헤이스·엄지성·허을 체력 보강
7월 첫 승...승격 재시동 기대

홈에서 잠시 주춤했던 광주FC가 승리를 위해 김포FC원정을 떠난다.
광주는 2일 오후 8시 솔터체육공원 축구장에서 김포FC와 하나원큐 K리그2 2022 2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23라운드 경남FC와의 홈경기에서 1-4로 패배하면서 지난 3월 26일 충남아산전(2-1 승)부터 이어오던 15경기 무패(11승 4무)가 중단됐다. 홈경기 연승 행진

도 10경기에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광주는 이날 패배에도 불구하고 승점 46으로 리그 1위(14승4무3패)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2위 대전하나시티즌(10승8무3패·승점 38점)과 승점 8점 차로 크게 앞서 있는 상황이다.
분위기는 여타 패배한 팀들과는 사뭇 다르다. 3개월 넘게 패하지 않으며 받았던 피로도와 부담감을 훌훌 털어버리고 팀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김포전 전망은 좋다. 광주는 끌려 다니는 상황에서도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며 슈팅 13개(유효슈팅 6개)를 기록할 정도로 매서운 공격을 진행했다. 멀티 플레이어 박한빈이 최전방으로 나서 동점골을 넣으며 전술 옵션도 늘렸다.

또, 최근 4경기 동안 3골을 넣은 김중우, 8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인 헤이스, 광탄소 년단 엄지성은 후반 교체 투입으로 체력을 아꼈다. 장신 공격수 허을도 대기하고 있어 든든하다.
중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정호연은 올 시즌 꾸준한 출장과 함께 경험을 쌓으며 기량을 늘려가고 있다. 이순민 역시 왕성한 활동량을 유지하고 있다. 경남전에서 흔들렸던 수비도 다시 재정비해 탄탄한 모습을 유지하려 한다.
이제 광주는 다시 일어선다. 패배의 아픔을 뒤로하고 김포 원정에서 필승을 다짐한다. 이번 상대 김포는 리그 8위(5승6무10패·승점 21점)에 오르며, K리그2 첫 시즌 선전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 5월 4일 김포 원정에서 엄지성과 이은뜸의 활약으로 2-1 승리를 거뒀다. 승리 자신감과 지난 1라운드 개막전 패배의 아쉬움을 적극적인 공격과 압박으로 풀어내 1위 독주체제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김포는 전력은 약하지만 끈끈한 조직력과 약삭같은 수비가 강점이다.
김포는 2위 대전과의 경기에서 1-1무승부를 거두며 팀의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손석용을 비롯해 김중석, 윤민호 등 한 방을 갖춘 공격수들도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광주가 이번 김포전을 통해 7월 첫 승과 함께 승격을 향한 재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혜원 기자



헤이스



티샷하는 박성국 지난달 30일 부산 기장 아시아드CC에서 열린 아시아드CC 부산오픈 1라운드 17번홀에서 박성국이 티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KBO 레전드 40인 1~4위 올스타전서 공개

오는 15~16일 잠실구장

KBO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선정된 ‘레전드 40인’ 가운데 최다득표 4명의 이름이 KBO 올스타전에서 공개된다.
3년 만에 열리는 올해 올스타전은 15, 16일 이틀 동안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다.
KBO가 30일 공개한 ‘2022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전’ 프로그램에 따르면, 팬들과 전문가 선정위원의 투표로 뽑힌 ‘레전드 40인’ 중 1~4위 선수의 이름을 올스타

전 당일인 1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9주 동안 매주 4명씩 나머지 36명의 선수도 차례로 공개된다.
올스타전 본개입이 열리는 16일은 팬 사인회로 시작해 10개 구단 선수와 팬이 함께하는 팀 릴레이대결인 신한은행 SOL 슈퍼레이스도 3년 만에 팬들을 찾아온다. 오늘까지 KBO 홈페이지를 통해 구단별 어린이 팬 참가 신청을 받는다.
올스타전 본개입은 오후 6시에 드림 올스타(KT, 두산, 삼성, SSG, 롯데)와 나눔 올

스타(LG, 키움, NC, KIA, 한화)의 맞대결로 시작한다. 드림 올스타가 홈(1루 덕아웃)이다.
올 시즌 은퇴를 선언한 롯데 이대호의 은퇴투어도 KBO 올스타전에서 스타트를 끊는다. 이대호의 은퇴를 기념해 의미 있는 선물과 이벤트가 마련됐다.
올스타 전야제로 계획된 15일 ‘올스타 프라이데이’에는 퓨처스 올스타전과 홈런레이스가 열린다.
퓨처스 올스타전은 오후 7시부터 남부리그(상무, 롯데, NC, 삼성, kt, KIA)와 북부리그(LG, 고양 히어로즈, 두산, SSG, 한화)가 맞붙는다.
/조혜원 기자

우상혁, 실내외 세계육상선수권 석권 도전

15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행
우승 목표...16일 예선 출전

불모지 한국 육상에서 탄생한 ‘세계 최정상급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전설’ 하비에르 소토마요르(55·쿠바)만이 달성한 ‘남자 높이뛰기 같은 해 실내·실외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석권’에 도전한다.
올해 3월 20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4를 뛰어 우승한 우상혁은 오는 15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개막하는 2022 세계(실외)육상선수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지난해 열린 2020 도쿄올림픽 공동 1위 무타즈 예사 바심(카타르), 장마르크 탬베리(이탈리아)와 함께 ‘남자 높이뛰기 빅3’로 분류된 우상혁은 2022년 국제대회에서 4차례나 우승(2월 6일 체코 후스토페체 2m36·2월 16일 슬로바키아 반스카 비스트리차 2m35·3월 20일 세계실내육상선수권 2m34·5월 14일 도하 다이아몬드리그 2m33)하며 ‘현재 최고 기량을 갖춘 선수’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상혁의 이번 대회 목표는 우승이다.
역대 남자 높이뛰기에서 실내와 실외 세계선수권에서 모두 우승한 선수는 파트리크 셰비리(스웨덴·1985년 실내, 1987년 실외), 찰스 오스틴(미국·1997년 실내, 1991년 실외), 하비에르 소토마요르(쿠바·1993·1995·1999년 실내, 1993·1997년 실외), 무타즈 예사 바심(카타르·2014년 실내, 2017·2019년) 등 단 4명뿐이다.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 챔피언 우상혁이 유진 실외 세계선수권에서도 정상에 오르면 역대 5번째로 실내와 실외 세계선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리는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높이뛰기 우상혁이 지난달 30일 출륙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유망주 U22 박성결 영입

빠른 스피드·볼키퍼 강점

전남드래곤즈가 용인대에서 이장관 감독과 함께 했던 U22 박성결(21)을 영입했다.
용인대를 대학축구 최정상에 올려놓은 박성결은 전남 주장 김현욱을 연상케 한다. 160cm·53kg의 단신이지만 빠른 스피드와 좋은 볼키퍼 능력을 지닌 박성결은 지치지 않는 활동량으로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빈다.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어 이장관표 축구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지난달 30일 메디컬을 진행하고 전남에 입단한 박성결은 “전남에 입단하게 되어서 영광이다. 항상 꿈꾸던 프로무대에 오게된



박성결

것이 꿈만 같으며 프로무대에 데뷔하고 싶다”며 “박성결이라는 이름을 그라운드에서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전남은 박성결 영입으로 U22 자원을 보강하면서 이장관표 ‘용광로 축구’의 불씨를 강화했다. 여름이적시장에서 잇따른 유망주를 영입한 전남이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 팬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조혜원 기자



지난달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2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KIA 8회말 1사 2루에서 나성범의 2루타 때 2루주자 소크라테스가 역전 득점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소크라테스 ‘성공 신화’ 퇴출위기서 득점 1위 급반등

KIA 타이거즈 소크라테스 브리토(30)는 퇴출 위기에서 벗어나 성공 신화를 쓰는 데 성공했다.
4월까지만 해도 타율 0.227로 부진해 교체설이 끊이지 않고 나왔지만, 5월 타율 0.415로 반등하는 데 성공해 5월 KBO 최우수선수(MVP)까지 수상했다.
6월에도 뜨거운 타격감을 이어간 소크라테스는 타율 4위(0.333), 득점 1위(52득점), 최다 안타 2위(98개), 홈런 공동 7위(11개), 타점 9위(46점)로 공격 전 부문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다.
KIA는 28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외국인 투수 로니 윌리엄스를 방출하고 왼손 투수 토머스 파노니(28)를 영입했다.
소크라테스는 2019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파노니와 잠시 한솥밥을 먹기도 했던 인연이 있다.
/연합뉴스

그는 “아직 따로 파노니에게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같은 팀에서 뛰었으니 충분히 조언해줄 수 있다”며 “내가 시즌 초반 시행착오를 겪은 것들이 그 친구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KBO리그에서 성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기가 풀리지 않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시즌 초반에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감은 놓지 않았다. 반드시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크라테스의 활약을 앞세운 KIA는 지난달 29일 기준 4위(38승 34패 1무)에 안착했다.
후반기에는 교체 외국인 선수와 함께 포스트시즌 진출을 노린다.
목표를 묻자 그는 “팀을 챔피언으로 만들기 위해 시즌 마지막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 생각한다”고 했다.
/연합뉴스